



朴星洙 대표이사

르 번 •

## 全南第2地区 의료보험조합

### 朴 星 洙 대표이사를 찾아서

초봄의 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히는 지난 3월 7일, 기자는 보리순 향기가 진동하는 호남벌판으로 차를 몰았다.

더구나 이번의 취재 스케줄은 光州를 거쳐 호남의 항구도시 木浦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라 자못 가슴 설레임을 금치 못했다. 왜냐하면 기자가 난생 처음 木浦 땅을 밟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이리라 —

보리순으로 끓인 향긋한 된장국은 향토색 짙은 호남지방의 내음과 함께 봄의 味覺으로 감칠맛나

는 구수함을 더 해주고 있었다.

광주에서 목포까지의 景觀은 포근함에 감싸인 山川의 모양과 함께 따뜻한 어머니의 가슴을 느끼게 해 준다.

全南지부의 李鴻量국장과 기자는 전남 특유의 각종 젓갈이 놓인 맛있는 밥상으로 배불리 포식한 다음 새로 건설된 4km가 넘는 영산강 댐을 가로 질러가면서 그 웅장한 工事に 새삼 놀랐다. 역시 목포의 名物로 등장하겠구나를 느끼며 항구도시에 닿았다.

항구 특유한 뿌연 건물들에 매

료되면서 全南第2地區 의료보  
험조합 사무실에 도착한 것은 오  
전 11시경 —.

호남의 소금강이라고 일컬어지  
는 儒達山의 깎아지른듯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중심가 務安洞에 자리  
잡은 조합사무실은 작은듯하나 규  
모있게 짜여 있어 운영자의 성품  
을 보지 않고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대표이사 朴星洙씨가 반가히 맞  
아준다. 李鴻量국장과는 서로가  
구면으로 兄弟間이상의 우의를 보  
여 준다.

사업이전에 인간적인 유대가 있  
는 때문인지 오랫동안의 만남을 서  
로 아쉬워 한다.

느긋한 정취를 흐뭇해 하면서 朴  
대표이사에게 여러가지를 물어 보  
았다. 前職이 言論人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곡을 찌르는 철  
학있는 답변에 기자의 마음 또한

흐뭇해지는것을 느낀다.

朴星洙대표이사는 힘주어 이야  
기 한다. 「—성인병은 일종의 문  
화병입니다. 요즘은 문화생활의  
향상으로 건강생활 유지에 관심이  
큽니다. 더구나 식생활면에서 육  
류소비량이 많아져서 갑자기 성인  
병질환이 늘어났다고 생각됩니다.

이런면에서 건강관리협회의 사  
업은 매우 중요성을 띄고 있음니  
다. 우선 비전염성만성질환, 소위  
성인병 환자의 발견은 계몽이 선  
행되어야 하며 성인병사업은 환자  
를 도시 주변에서부터 찾아서 농  
어촌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반면에 기생충사업은 매년 저하  
일로에 있으므로 전망은 밝다고 생  
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생충사업은  
기동성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성  
인병 사업과는 반대로 농촌에서도

기자와 대담하는 朴대표이사(右)와 기자(中) 李鴻量국장(左)



시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료순회진료도 역시 농촌에서 도 시로 순서를 정해야지요.

진협에 건강검진차량「건강1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기생충사업이 더욱 기동성이 요구된다고 봐요.

사실 말이지만 가검물 수집에 지장은 어느 조합이나를 막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효과를 걸우려면 찾아가서 검사해야 하는데 이런면에서 앞으로 寄協과 협동체제를 강구해서 대처할 생각입니다.」

× ×

全南 제2지구 의료보험 조합은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 장흥, 해남, 진도, 완도 등 9개시군을 카바하고 있으며 피보험자 10200명 외에 부양자를 합쳐 25,96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사업장수 135개소, 보험료를 1000분의 34로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모범조합이다.

朴星洙대표이사는 보사부장관포장, 도지사포장을 수상하는 등 명실공히 리-더로서 선두 역할을 하고 있다.

83년도 사업계획으로 「의료보험 운영의 內實化」를 목표로 맹활약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계획으로는 조합업무의 활성화, 피보험자 권리보호의 충실화 재정건축운영, 보건예방사업 및 홍보사업의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

朴대표이사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낙도가 가장 많은 곳이 전

남이며 특히 우리조합은 신안군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수진율의 저하가 눈에 띄입니다. 생활수준이 약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조합운영은 他조합에 비해서 비교적 건실한 편입니다. 하하…….」

의료보험은 피보험자와 진료기관과의 사이에서 교량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朴대표이사는 진료기관에 말하기를 환자들에게 高價약을 쓰도록 권장한 결과 호응도가 좋으며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고 말하면서 그의 경영 철학을 이야기 한다.

「자랑거리 없는 것이 자랑거리」라고 말하는 朴대표이사는 눈에 보이게 안보이게 직원 후생복지에도 힘쓰노라면서 직원교육에 있어서는 知的인 면에서나 정신적인 면에서나 종교적인 믿음을 강조하여 교양을 중요시 한다고 강조하기도—

의료보험조합의 존재의의는 현재와 같이 보건통계자료가 전무한 상태에서는 보건정책수립에 난항을 겪고 있음으로 이런 자료들은 일선 조합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선 작업장에서 환자발생 요인이 작업환경 개선이 안되어서 생긴다면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여 반영시키는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外柔內剛한 朴星洙대표이사와 작별하면서 역시 名將 밑에 弱卒은 없는 법이라고 생각하며 그의 지휘를 받는 직원들은 모든 면에서 행복하겠구나를 되뇌이고 있었다.